

# 사진을 통한 자연보호운동

중앙大 법대교수  
法博 이 상 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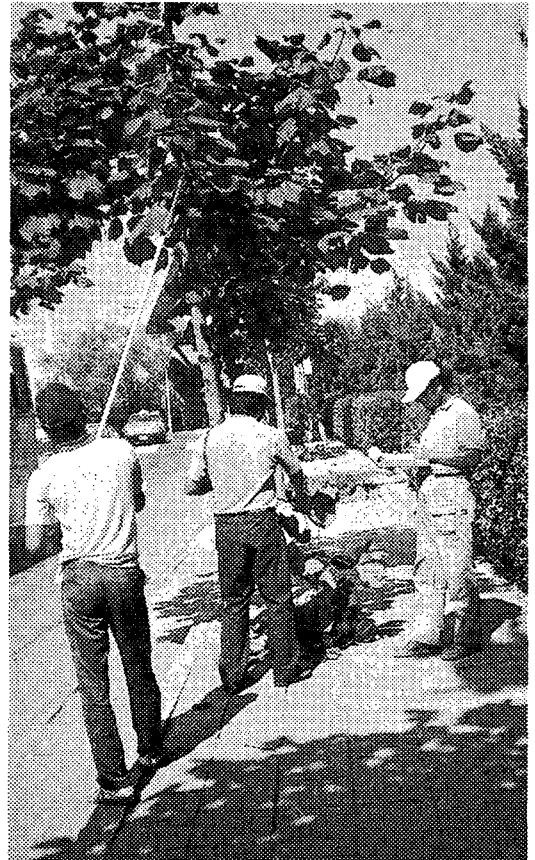
## I

우리나라의 환경보호운동은 아직까지도 공해 추방, 또는 환경오염추방 운동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듯 하다. 그리고 공공단체와 언론기관 등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환경보호 캠페인도 역시 환경오염의 추방에 주안점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른바 “환경고발”이라고 하여 신문이나 TV에 자주 등장되는 장면도 역시 추악한 환경오염의 현장의 모습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회고발적인 사진은 일반대중에 나름대로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사진매체의 전파는 역효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한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자연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한다. 특히 환경교육이라고 하여 초·중등학교 학생에게 환경오염의 현장의 사진만을 전시하고 게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지 않나 한다.

## II

흔히들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반영하는 사진매체가 과연 존재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요즈음은 달력의 사진에서도 우리나라의 자연의 모습은 보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동양화, 도자기사진, 그리고는 야릇한 옷

을 걸친 여배우의 모습을 담은 달력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매우 서글픈 일이라



“

자연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 사진에 담아 놓는 것에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고 ...

”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사진작가들은 이미 자기네 국토의 자연에 대하여 흥미를 상실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리고 자연보호운동을 하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떠한 긍정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를 정도이다.

그러나 사진작가만을 탓할 일도 결코 못된다. 우리의 생활수준도 많이 나아져서 주말에 야외에 나가는 사람치고 카메라 한대 목에 걸치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그 카메라는 기껏해야 증명사진 찍는 역할 밖에 못하고 있다.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자기 얼굴을 자기의 카메라에 그렇게 담으려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6월의 용인 자연농원은 실로 장미꽃의 만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출입 금지된 화단속에까지 들어가서 자기의, 또는 자기의 일행의 증명사진을 찍는데 열심이었고 장미의 화원,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다만 몇몇 안되는 서양인(아마도 미국인) 관광객만이 만개한 장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을 뿐이다.

Ⅲ

필자는 미국 유학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미국의 남부와 동부를 꽤 샅샅이 여행할 기회를 가졌다. 그 중에서도 에버글레이드 국립공원과 그레이트 스모키산 국립공원의 여행은 매우 소중한 자연의 체험이었다. 미국인들은 여행을 매우 즐기는 사람들이고, 여행에 있어서 카메라는 필수품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카메라는 자연과 풍물을 찍는 것이지 결코 자기얼굴을 찍지

는 않는다. 그들은 자연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 사진에 담아 놓는 것에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인의 태도는 그들의 달력 취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은 달력인심이 후하기 때문에 달력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연말에 서점에서 꽤 비싼 돈을 지불하고 달력을 사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인기있는 달력은 미국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있는 것이다. 실로 많은 사진작가들은 아름다운 미국의 자연의 모습을 찍기 위하여 산과 계곡과 바닷가, 그리고 때로는 사막을 누비는 것이며, 두말할 나위없이 이러한 사진작품은 가장 훌륭한 자연환경보호의 선생님인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환경보호단체인 시에라클럽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달력을 매년 발간·판매하고 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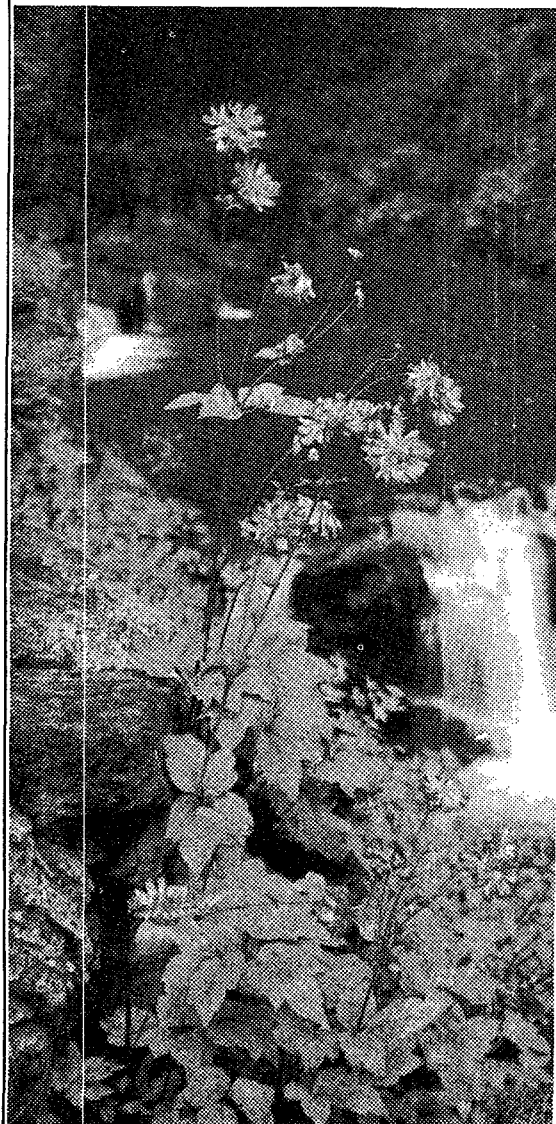
위와 같은 이유에서 사진이야말로 매우 훌륭한 자연보호운동의 도구인데, 이러한 점에서 3년전에 타계한 앤셀·애담스(Ansel Adams)야말로 미국인의 자연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로서 평가되는 것이다.

앤셀·애담스는 샌프란시스코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릴때부터 총명하고 활동적이었던 탓으로 그의 부친은 학교보다는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의 정규교육은 국민학교 도중

“

자연환경보호에 있어서 사진매체의  
역할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에서 끝나고 말았다. 그는 특히 피아노에 탁월한 소질이 있었으나 그는 피아니스트란 결국 주어진 곡을 연주하는 생애라고 생각하여 피아노를 포기하였다. 앤셀·애담스가 자연을 일찌기 탐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랐던 샌프란시스코의 바닷가와 산타크루즈, 퓨조·사운드, 그리고 요세마이트의 산을 어릴때 여행한데서 싹뻗었다고 한다. 사실 그는 요세마이트의 계곡을 생애를 두고 사랑하였다. 요세마이트를 자주 여행하면서 그는 사진기술을 익히게 되었으며 1920년에 초창기의 시에라·클럽은 그를 요세마이트지부의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1922년부터 시에라·클럽은 앤셀·애담스의 사진을 회보에 실기 시작하였으며 그는 곧 시에라·클럽의 공식 사진작가가 되었으며 1934년에는 시에라·클럽의 이사로 선임되었는데, 그는 1971년에 69세의 나이로 이 직위에서 은퇴하였다. 이후에도 그는 몇몇 자연보호단체와 관계를 가졌으며, 1980년 카터 대통령은 자연보호에 대한 그의 헌신을 기리기 위하여 그에게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였다. 그는 1984년 4월 22일 향년 82세로 사망하였다.

앤셀·애담스는 실로 자연보호를 위하여 많은 연설과 글을 남겼으나 그의 가장 큰 기여는 사진을 통하여서였다. 그는 특히 미국서부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후세의 미국인에 널리 전파하여 자연적 생태계의 미적 가치를 인식시킨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앤셀·애담스야말로 자연보호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을 가장 크게 증진시킨 사람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의 현장보다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담은 사진이 후세를 위해 더욱 중요하다



V

현대 사회에 있어서 사진매체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다. 따라서 자연보호운동에 있어서 사진매체의 역할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환경오염의 현장사진 보다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미래의 세대의 자연관을 형성하는데 더욱 중요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발간되는 「내쇼날·지오그래픽」지는 각국의 자연과 풍물에 관한 사진과 심층기사를 실고 있는데 이 잡지를 1년만 구독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연보호론자, 그리고 환경보호론자가 될 것이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에게 우리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앤셀·애담스와 같은 사진작가가 우리 사회에는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찍는 사진대회라도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최로 자주 열렸으면 하며, 또한 「내쇼날·지오그래픽」과 같은 국내잡지가 발간되어서 온 가족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빌어 마지 않는다. \*

**의식개혁 9대 실천요강**

**정직** 모든 생활은 정직에 원칙을 두고 새시대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불신풜조를 과감히 추방한다.

**질서** 모든 생활의 기초를 질서에 두고 이를 체질화하기 위해 국민적 역량을 최대한 경주한다.

**창조** 왜곡된 미풍양속의 본질을 되찾아 민족정기와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킨다.

**책임** 모든 공직자는 청렴의무를 준수하고 무사안일등 고질적인 폐습에서 탈피 스스로를 철저히 책임지는 풍토를 확립한다.

**분분** 각자가 자기본분에 충실하고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분수** 생활주변의 고질화된 각종 낭비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분수에 맞는 생활자세를 정립한다.

**주인의식** 민주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회의 부정·비리와 무질서에 대한 건전한 고발정신을 함양한다.

**국민화합** 지나친 이기주의와 뿌리깊은 파벌, 연고의식을 철저히 불식함으로써 국민화합의 기반을 확충한다.

**가정교육** 모든 교육은 가정교육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우리위해 더맑게 후손위해 더푸르게**